

# 기능적 어순 원리

현 완 송\*

〈 차 례 〉

1. 서론
2. 기능적 문장 구성론 원리
3. Dik의 기능적 어순 원리
4. 체계문법의 어순 원리
5. Tomlin의 기능적 원리
6. 결론

## 1. 서론

어순에 대한 언어학적 관심의 고조는 Greenberg(1963)가 창시한 어순유형론(word order typology)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비교·역사 언어학(comparative historical linguistics)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19세기에서도 어순에 대한 고찰, 특히 어순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원리에 대한 고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Bean(1983:18)에 의하면, Weil(1844)은 19세기 전반에 이미 단어의 순서는 사고의 순서를 나타내며 이 둘의 순서는 동일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문장을 화제(topic)와 논평(comment)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SVX 유형의 언어는 전치사와 명사-수식어 어순을, SXV 언어는 후치사와 수식어-명사 어순을 사용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언급 중 화제-논평의 분석은 프라그 학파의 기능적 문장 구성론(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이나 Halliday(1985) 등의 체계문법(systemic grammar)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또한, 후자의 언급은 Greenberg(1963) 이래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유형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여 SVX 유형의 언어는 전치사와 명사-수식어 어순을, SXV 유형의 언어는 후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부교수

치사와 수식어-명사 어순은 사용한다는 Weil의 언급은 Bartsch and Vennemann(1973: 136-37)의 자연적 배열의 원리(principle of natural serialization)의 근간을 이룬다. 자연적 배열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또한 아래의 식형으로 형식화 된다.<sup>1)</sup>

The principle of natural serialization: The natural way of serializing the operator-operand relationship of all complex expressions is from right to left in OV languages and from left to right in VO languages.

{Operator {Operand}} → [Operator(Operand)] in OV languages  
 [[Operand]Operator] in VO languages

한편, 자연적 배열의 원리는 생성문법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먼저, Comrie(1981:7)는 생성문법이 제안하고 있던 「X' → Spec  $\bar{X}$   $\bar{X}$ 」라는 핵계층 식형을 비판한다. Comrie에 의하면, 임의의 구(phrase)인 X'는 지정어(Spec)와 중간투사범주(intermediate projection)인  $\bar{X}$ 로 그 구조가 명시되는데,  $\bar{X}$ 의 지정어가  $\bar{X}$ 에 선행하도록 식형(schema)이 짜여진 것은 VO형의 언어인 영어에만 근거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위의 식형은 참된 언어 보편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비판의 결과인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생성문법은 핵-보충어 매개변형(head-complement parameter)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고, 매개변형의 값으로 선행(head-first), 후핵(head-last)을 취하여 세계의 모든 언어를 선행언어(head-initial language)와 후핵언어(head-final language)로 양분한다. 사실 이것은 자연적 배열의 원리 즉 VO언어에서는 핵이 수식어에, OV언어에서는 수식어가 핵에 선행한다는 사실을 형식화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Weil은 이미 어순이 원리에 관한 탁월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1) Bartsch and Vennemann(1973), *Semantic Structures*, Frankfurt and Main: Athenäum Verlag, p. 136.

본 연구는 문장의 구성소 또는 구성소의 구성소들간의 순서를 결정하는 원리들을 언어의 기능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기능적 문장 구성론 원리

언어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달기능이라 하겠다. 그런데 언어의 전달기능은 기본적으로 문장이라고 하는 단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Chomsky(1957:3)는 언어를 문장의 집합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전달단위로서의 문장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장은 언어의 전달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구조가 짜여질 것이라는 전제가 어순에 대한 기능적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순에 내재되어 있는 기능적 원리들에 대한 언급은 이미 19세기에서도 있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Bean(1983:18)에 의하면 Weil(1844)은 문장을 화제와 논평으로 분석하였다. 즉 화자는 현존(present)하고 있거나 알려진(known) 어떤 것에 의지해서 현존하고 있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실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Weil은 또한 청자에게 화자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줄 것이 없을 때 즉 기지의 정보가 없을 때는 존재문(existential sentence)이 사용된다고 말함으로써 문장을 철저하게 기능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러한 Weil의 이론을 보다 객관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McKnight(1897)이다. McKnight는 주관적 어순(subjective order)과 객관적 어순(objective order)을 구별하였는데, 주관적 어순은 옛 정보-새 정보의 순서로 사고가 진행되는 데 따라 배열되는 기능적 어순 즉 화제-논평의 어순을 뜻하며, 객관적 어순은 문법적 어순(grammatical ordering) 즉 주어-동사-목적어의 순서로 전개되는 어순을 뜻한다.

한편, Hockett(1963:23)는 「인간의 모든 언어는 화제와 논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성소들로 이루어진 양분구조의 절(clause)을 가지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Weil이나 McKnight의 이론을 언어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Givón(1975:76)도 Weil등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것을 하나의 보편적인 어순 원리로 삼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좌측에 있는 구성소가 더 화제적인 요소 즉 새로운 정보를 지니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구성소는 새로운 정보를 지니는 초점(focus)이다.

언어습득의 관점에서 Bates(1976:162, 210)는 두 단어단계의 아동어에서 두 개의 단어는 각각 화제와 논평에 해당된다고 함으로써 화제-논평의 기능적 관계를 더욱 보편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이 단계의 아동들은 화제-논평이 아닌 논평-화제의 어순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전 단계 즉 한 단어 단계의 아동어에서 그 단어는 가장 제보적인(informative) 요소, 즉 논평에 상당하는데(이 때 화제에 해당되는 요소는 발화되지 않는다), 그것만을 발화하던 습관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점차 성인어로 옮겨감에 따라 어순이 화제-논평의 순서로 바뀐다고 한다.

한편, Brown(1994:27)에 의하면, 2어발화(two-word utterances)시기의 아동의 문법을 주축문법(pivot grammar)이라고 하는데 이 문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Sentence → Pivot word + Open word

예:	My	Cap
	That	horsie
	Allgone	milk
	Mommy	sock

즉, 2어발화는 임의의 두 단어가 아무렇게나 나열되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주축어(pivot word) + 개방어(open word)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주축문법의 내용인데, 이 분석은 Bates의 「논평 + 화제」 분석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고 있다.

Givón(1979:226-27)은 아동어에서 성인어에로의 발달을 화용양상(pragmatic mode)에서 통사양상(syntactic mode)으로의 이행으로

본다. 다시 말하여 아동어에서의 어순은 화용상의 원칙에 먼저 지배되어 옛 정보(화제)-새정보(논평)의 어순과 통사상의 어순이 상충함에 따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사적 문법표지가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Weil(1844)에서 비롯되어 널리 인정받고 있는 기능적 어순 이론은 Prague 학파에 의해서 기능적 문장 구성론(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FSP)으로 발전하게 된다. Firbas(1974:15-6)에 따르면, Prague 언어학자들은 먼저 문장을 의미 층위(semantic level), 문법적 층위(grammatical level), 기능적 문장 구성론 층위(level of FSP)의 세 층위로 나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문장의 패턴을 다시 의미적 문장패턴(semantic sentence pattern: SSP), 문법적 문장패턴(grammatical sentence pattern: GSP), 의사전달의 문장패턴(communicative sentence pattern: CSP)의 셋으로 구분한다. 이때 SSP는 행위자(agent)-행위(action)-도달점(goal)의 구조를, GSP는 주어-동사-목적어의 구조를, CSP는 주제(theme)-전이(transition)-논술(rheme)의 구조<sup>2)</sup>를 지닌다고 하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식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sup>3)</sup>

- 2) 대부분의 Prague언어학자들처럼 Firbas(1974:25-26)도 theme과 rheme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자적 요소로서 transition이라는 범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제 4장에서 고찰하게 될 Halliday 등의 체계문법(systemic grammar)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문장을 theme-rheme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He	has fallen	ill
Firbas	theme	transition	rheme
Halliday	theme	rheme	

- 3) Danes(1967:500)는 모든 발화는 문법적 구조, 의미적 구조, 화제-논평의 구조를 갖는 세 가지 층위(level)로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John	bought	a book
(1) Subject	Verbal Predicate	Object
(2) Agent	Action	Goal
(3) Topic	Comment	

	John	wrote	a poem
SSP	agent	action	goal
GSP	subject	verb	object
CSP	theme	transition	rheme

이때, CSP가 Prague 학파에서 제안하고 있는 FSP원리를 만족시키는 구조인데, Firbas(1964)는 FSP원리를 "the principle of FSP causes the sentence to open with thematic elements and close with rhematic elements"라고 정의한다(Beaun (1983:19)). 곧 FSP원리는 문장을 주제적 요소로 시작하여 논술적 요소로 끝나게 해 주는 원리인 것이다. 그러나 FSP원리는 Weil이나 McKnight 등의 이론을 이어받으면서도 그 내용을 다소 달리한다. 즉 Weil 등은 옛 정보(old information)인 화제로 시작해서 새 정보(new information)인 논평으로 문장이 끝난다고 한 반면, Firbas(1964, 1974) 등은 old / new라는 개념 대신에 제보력등급(degree of communicative dynamism: degree of CD)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능적 어순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old / new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 제보력 등급의 개념과 그 의의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먼저, Chafe(1976:30)는 옛 정보와 새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Given (or old) information is that knowledge which the speaker assumes to be in the consciousness of the addressee at the time of the utterance.

So-called new information is what the speaker assumes he is introducing into the addressee's consciousness by what he says.

즉, 옛 정보는 청자의 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화자가 추정하는 지식이고 새 정보는 화자가 청자의 의식 속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지식

인 것이다.

한편, Prince(1979: 267-71)는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내지 복원가능성(recoverability), 현저성(saliency), 공유지식(shared knowledge)의 세가지 관점에서 기지성(givenness) 즉 옛 정보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3차원적으로 정의한다.

Predictability/Recoverability: The speaker assumes that the hearer can predict or could have predicted that a particular linguistic item will or would occur in a particular position in a sentence.

Saliency: The speaker assumes that the hearer has or could appropriately have some particular thing in his / her consciousness at the time of hearing the utterance.

Shared knowledge: The speaker assumes that the hearer assumes or can infer a particular thing.

즉, 기지성은 청자가 특정 언어항목이 문장의 특정 위치에 나타나리란 걸 예측할 수 있다고 화자가 생각하는 항목에 주어지는 특징이며, 또한 청자가 발화를 듣는 시점에서 특정 항목을 의식 속에 지닐 수 있다고 화자가 생각하는 항목에 주어지는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기지성은 청자가 특정 항목을 생각하거나 추론해 낼 수 있다고 화자가 생각하는 항목의 특성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Gundel et al.(1993:275)은 자연언어에 나타나는 지시표현의 인지적 지위(cognitive status)와 관련하여 기지성(givenness)을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 계층으로 설정한다.

### The Givenness Hierarchy

in		uniquely		type
> activated >	familiar >		> referential >	
focus		identifiable		identifiable
	that			
{it}	this	{that N}	{the N}	indefinite{a N}

this N

this N

이처럼 여러 각도에서 고찰해 볼 수 있는 기지성 또는 old / new의 개념은 의사전달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장의 구조에 반영되어 보통 old / new의 어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Firbas(1974:23-24)는 old(given) / new라는 개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지성(givenness)이라는 개념대신 제보력 등급(degree of CD)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문장의 어순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An unknown man has asked him the way to the railway station.  
 (2) A girl broke a vase.

위의 예문 (1), (2)에서 An unknown man이나 A girl은 알려져 있거나 명확한 어떠한 정보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즉 옛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화제로 될 가능성이 적지만 문장의 출발점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old / new의 개념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Firbas는 old / new 또는 givenness의 개념을 버리고 제보력등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Firbas(1992:7-8)는 제보력 등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t follows that by a degree of communicative dynamism I understand the relative extent to which a linguistic element contributes towards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communication.

즉, 제보력 등급이란 언어요소가 의사소통을 전개하는데 기여하는 상대적인 정도, 바꾸어 말하면, 언어요소가 갖는 정보상의 상대적 중요성이다.

Firbas(1992:6)는 또한 제보력 등급이 가장 높은 언어요소를 다음과 같은 언급으로 정의한다.



The element towards which a sentence or subclause is oriented conveys the information that complete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cation taking place within the sentence or subclause. It contributes most to this development and is therefore the most dynamic element within the sentence or the subclause.

한편, 언어요소는 제보력 등급이 높을수록 문장의 뒤쪽에 오며, 낮을수록 문장의 앞쪽에 오게 된다. 따라서 앞의 문장 (1)과 (2)에서 An unknown man이나 A girl이 미지의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문두에 위치하는 것은 그것들의 제보력 등급 즉 정보상의 중요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Firbas(1974:24)는 주제를 "the theme is best defined as constituted by an element or elements carrying the lowest degree(s) of CD within a sentence."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주제가 문장의 첫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은 그것이 옛 정보이기 때문이 아니고, 가장 낮은 제보력 등급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3) a. He gave a boy an apple.
- b. He gave an apple to a boy.
  
- (4) a. In order to meet his friend, he went to Prague.
- b. He went to Prague in order to meet his friend.

Firbas(1974:21)는 또한 (3)과 (4)의 각각에서 a와 b의 어순 차이를 제보력 등급의 차이로 설명하고, CD가 작은 언어요소가 왼쪽에 위치하게 된다고 말함으로써, 옛 정보 / 새정보의 개념 대신 제보력 등급의 개념으로 어순에 반영되는 기능적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Firbas(1992:19)는 또한 의사소통상의 단위(communicative unit)와 제보력 등급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하고 있다.

It follows that (i) a communicative unit can carry more degrees of CD than one and in this respect be heterogeneous in regard to CD, and (ii) while a communicative unit is always a carrier of CD, a carrier of CD need not constitute a communicative unit. This means that a communicative unit always has its form, which does not invariably apply to a carrier of CD. Not every discernible semantic element (which on account of its meaningfulness participates in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cation) has its special form.

### 3. Dik의 기능적 어순 원리

Dik(1978, 1980)은 언어보편적 선호어순(language independent preferred order of constituents: LIPOC)의 존재를 제시하여 문장의 구성소들 간에는 일정한 보편적인 순서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Dik(1978: 21, 193)이 주장하고 있는 언어보편적인 선호어순을 식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P2, P1 { (V) S (V) O (V) }, P3  
LIPOC

(5)에서 P1, P2, P3는 LIPOC의 구속을 덜 받는 특별한 위치이다. 다시 말하여, 화용적, 통사적 요인에 의하여 구성소가 차지하는 자리인 것이다. 먼저 P1은 의문사(question words)나 화제(topic) 등이 위치하는 곳이고, P2는 좌측전위(left-dislocation)의 자리이며, P3는 우측전위(right-dislocation)의 자리이다. 또한 P2와 P3 사이의 부분은 절자체(clause proper)인데 이때 P1은 특별한 목적(예: 의문문의 의문사, 종속절의 보문자)에 사용되는 특별한 위치로서, 보통 주절에서는 어휘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곳이다.

Dik(1980:15)는 이어서 P2를 theme으로, P3을 tail로 용어를 교체한 후 자신의 LIPOC 식형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시한다.

(6) Theme, Predication, Tail

(6)이 뜻하는 바는, 모든 문장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서술(predication)이며 그 전후에 주제(theme)와 꼬리(tail)가 첨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주제와 꼬리에 대한 Dik(1980:16)의 정의와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Theme: the theme specifies the universe of discourse with respect to which the subsequent predication is presented as relevant.

Tail: the tail presents, as an afterthought to the prediction, information meant to clarify or modify it.

(7) As for my brother, he never saw her again, the poor child.

Theme	Predication	Tail
-------	-------------	------

다시 말해, 주제는 담화의 세계(universe of discourse)를 명시해주는 구성소로서 위의 (7)에서 As for my brother에 해당한다. 꼬리는 서술을 더 명백하게 하거나 수정하기 위하여 서술에 첨가되는 사후사고(afterthought)로서 the poor child에 해당하는 구성소이다.

또한 Dik(1978:87)은 주어가 목적어에 선행하는 것을 주어의 기능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주어는 자신이 참여하는 어떤 상황(state of affairs)을 제시하는데 있어서의 출발점(point of departure)이 되는 실체를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목적어에 선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Dik(1978:21)은 독일어, 네덜란드어의 경우 주절과 종속절에서 자신이 제안하고 있는 LIPOC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다음과 같은 식형으로 요약한다.

(8) 주절: P2, P<sub>1</sub>, Vf, S O Vi, P3

종속절: P1 S O Vf P3

Vi

(8)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독일어나 네덜란드어의 경우 종속절에서

는 P2(=theme)가 나타날 수 없으며, 관계대명사, 종속접속사 등의 보문자(complementizer)는 P1을 차지하며, 이 경우 종속절의 서술 그 자체는 SOV어순으로 이루어 진다고 하는 점이다.

#### 4. 체계문법의 어순 원리

Halliday가 발전시킨 체계문법(systemic grammar)의 어순원리는 한마디로 주제우선원리(theme first principle)라고 할 수 있다. Morley(1985:70)의 표현을 빌면, 모든 문장은 주제구조(thematic structure) 곧 「theme + rheme」의 구조를 갖는데, 이 구조가 바로 체계문법의 어순원리인 것이다.

Halliday(1985:33-40)는 먼저, 절을 전언으로서의 절(clause as a message), 의사교환으로서의 절(clause as an exchange), 그리고 제시로서의 절(clause as a representation)의 세 가지로 대별한다. 그리고 각각의 절에서 중심이 되는 구성소를 각기 심리적 주어(psychological subject), 문법적 주어(grammatical subject), 그리고 논리적 주어(logical subject)로 보고 있다. 여기서 심리적 주어는 주제(theme), 문법적 주어는 주어, 논리적 주어는 행위자(actor)인데, 이 세 가지 주어가 일치하는 구조가 무표적(unmarked) 어순이고, 일치하지 않을수록 유표적인(marked) 어순인 바, Halliday(1985:34)는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한다.

무표 구조:

the duke	gave my aunt this teaspoon
심리적 주어	
문법적 주어	
논리적 주어	

유표 구조:

this teaspoon	my aunt	was given by the duke
심리적 주어	문법적 주어	논리적 주어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세 가지 주어가 일치할 때 가장 일반적인 어순 구조가 되며, 일치하지 않을 때 특수한 어순구조가 된다. 한편, 심리적 주어 즉 주제는 「전언으로서의 절」에서의 관심사(that which is the concern of the message)로서, 화자는 이것을 발화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고, 따라서 어떠한 문장에서도 주제가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된다.

Halliday는 이러한 개념을 확대하여 주제를 명사구(nominal group)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즉, 문장의 첫 위치에 등장하는 임의의 요소는 화자의 발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것을 모두 주제로 삼고 있으며, 주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논술(rheme)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Morley(1985:70)는 "The theme is thus the element which the speaker selects as the starting point of his message, and everything that follow it is the rheme"이라고 주제와 논술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9)	theme	rheme
	The results	will be announced tomorrow.
	Tomorrow	the results will be announced.
	Announce	the results tomorrow.
	Have	you seen the exhibition yet?
	We	saw the exhibition last Friday.
	The exhibition	we saw last Friday.
	What	did you see?
	Frankly	I'm amazed.
	See	a Martian we did.
	Did	you get a newspaper?
	Tired	you may be.
	John	they call him.

위의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는 명사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명사구 외에도 술어(predicator), 보어(complement), 부가어(adjunct), 조동사, wh-의문사 등 화자가 발화의 출발점으로 삼는 요소는 모두 주제가 되며, 주제 이외의 모든 부분은 논술이 되고 있는

것이다.

## 5. Tomlin의 기능적 원리

Tomlin(1986:17-125)은 주어(S), 동사(V), 목적어(O)의 세 구성소를 기준으로 하여 세계 400여개의 언어를 SVO, SOV, VSO, VOS, OSV, OVS의 여섯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출현빈도를 조사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 여섯가지 유형의 출현빈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구성소 순서	언어의 수	빈도 (%)
-V	SOV	180	44.78
	OSV	0	0.00
-V-	SVO	168	41.79
	OVS	5	1.24
V-	VSO	37	9.20
	VOS	12	2.99
	합계	402	100

Tomlin은 위의 발생빈도 중 SOV와 SVO간의 차이, 그리고 VOS와 OVS간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의의가 없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각 유형들의 발생빈도를 순서에 따라 도식화한다.

$$SOV = SVO > VSO > VOS = OVS > OSV$$

Tomlin은 이러한 사실의 토대위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어순지배의 기능적 원리(functional principle)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원리들은 각 유형의 발생빈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a. 주제우선원리(Theme First Principle: TFP)

: in clauses information that is relatively more thematic precedes information that is less so.

- b. 동사-목적어 결합원리(the Principle of Verb-Object Bonding: VOB)

: the object of a transitive verb is more tightly bonded to the verb than is its subject.

- c. 유생물먼저원리(Animated First Principle: AFP)

: in simple basic transitive clauses, the NP which is most animated will precede NPs which are less animated.

Tomlin의 TFP는 주제적 정보(thematic information)가 주어로서 문두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목적어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주제적 정보란 청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화자가 추정하는 정보, 다시말하여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의도하는 정보로서 이것이 주어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기능적 원리인 VOB는 타동사와 목적어가 통사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원리는 이미 Behaghel(1923:4)이 언급한 바 있다.

세 번째의 원리인 AFP는 더 유생적(animated)인 것이 덜 유생적인 것보다 문장에서 앞에 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Tomlin은 유생성(animatedness)을 「독립적 또는 동적인 활동의 능력」(being capable of independent of dynamic activity)으로 정의하면서 그 계층(hierarchy)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woman > monkey > dog > spider > bacteria >  
grass > dust > rock > tortilla > vase

또한 Tomlin에 의하면 아래 두 문장의 의미상의 차이는 바로 woman과 dust의 유생성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 a. The woman smothered the fire.  
b. The dust smothered the fire.

한편 위의 각 어순유형의 발생빈도는 Tomlin의 세 가지 기능적 원리들이 실현되는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Tomlin(1986:122-25)이

제시한 도표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사실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TFP	VOB	AFP
SOV	yes	yes	yes
SVO	yes	yes	yes
VSO	yes	no	yes
VOS	no	yes	no
OVS	no	yes	no
OSV	no	no	no

다시 말하여 SOV나 SVO 유형은 Tomlin의 세가지 원리를 전부 실현시키고 있어서 그 발생빈도가 가장 높고, VSO는 세가지 원리 중 두 가지를 실현시키고 있어서 그 발생빈도가 두 번째이며, VOS와 OVS는 세 가지 원리 중 단 하나만을 실현시키고 있어서 그 발생빈도가 세 번째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원리들 중 어느 하나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OSV유형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Tomlin의 원리들은 우선 402개나 되는 많은 언어의 분석에서 도출되고 있으며 또한 S, O, V의 세 주요 구성소 순서의 발생빈도의 설명에 상당한 설득력을 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SOV와 SVO는 Tomlin의 원리들을 전부 실현시키고 있는데 왜 어떤 언어들은 SOV로 나타나고 또 다른 언어들은 SVO로 나타나는가, 마찬가지로 VOB 하나만을 실현시키고 있는 VOS와 OVS간의 차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에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Tomlin은 자신의 원리들이 세계의 자연언어에 하나 이상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SOV와 SVO간의 차이같은 문제는 다른 원리들로 설명되어야 하겠다.

## 6. 결론

본 연구는 언어의 일차적 기능인 전달기능(communicative



function)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장의 구성소들이 배열되는 순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어순에 대한 언어학적 관심은 Greenberg(1963) 이래로 고조되기 시작했으나, 이미 19세기에도 탁월한 고찰이 있었다. Weil이 단어들의 순서는 사고의 순서를 나타내며 이 둘의 순서는 동일하다며, 문장을 화제와 논평으로 분석한 것이나, McKnight이 주관적 어순과 객관적 어순을 구분한 것 등이 그 예가 된다.

본 연구는 Weil등의 이러한 견해를 이어받은 Prague 학파의 어순 원리인 기능적 문장 구성론(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을 먼저 살펴 보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제보력 등급(degree of communicative dynamism)이 낮은 요소가 문장의 앞쪽에 나타나며, 이 등급이 높을수록 뒤쪽에 나타난다.

본 연구는 또한 Dik이 제시한 언어 보편적 선호어순(language independent preferred order of constituents)을 살펴 보았으며, 세 번째로는 체계문법의 어순원리를 개관하였다. Halliday가 발전시킨 체계문법의 어순원리는 한마디로 주제우선원리(theme first principle)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Tomlin의 원리인 주제우선원리, 동사-목적어 결집원리 및 유생물먼저원리를 살펴보았는데, 이 세 개의 원리를 모두 만족시키는 SOV유형과 SVO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볼 수 있었다.

## Bibliography

- Bartch R. and T. Vennemann (1973) *Semantic Structures*. Frankfurt and Main : Athenäum Verlag.
- Bates, E. (1976) *Language and Context*. Academic Press.
- Bean, M. C. (1983) *The Development of Word Order Patterns in Old English*. Croom Helm.
- Brown, H. D. (199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3rd ed., NJ.: Prentice Hall Regents.
- Chafe, W. L.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C. N. Li ed.,

- Subject and Topic*. Academic Press.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Hague and Paris : Mouton.
- Comrie, B. (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Oxford : Basil Blackwell.
- Danes, F. (1967) "Order of Elements and Sentence Intonation" *To Honour Roman Jakobson*. Hague : Mouton.
- Dik, S. C. (1978) *Functional Grammar*.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 \_\_\_\_\_. (1980) *Studies in Functional Grammar*. Academic Press.
- Firbas, J. (1964) "From Comparative Word Order Studies". *Brno Studies in English*. 4.
- \_\_\_\_\_. (1974) "Some Aspects of the Czechoslovak Approach to Problems of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in F. Danes ed., *Papers on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Prague : Academia.
- \_\_\_\_\_. (1992)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in Written and Spoken Communication*. Cambridge Univ. Press.
- Givón, T. (1975) "Serial Verbs and Syntactic Change : Niger-Congo". C. N. Li ed., *Word Order and Word Order Change*. Austin : University of Texas.
- \_\_\_\_\_.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Academic Press.
- Greenberg, J. H. (1963)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 in J. H. Greenberg ed., *Universals of Language*. Mass.: MIT Press.
- Gundel et al. (1993) "Cognitive Status and the Form of Referring Expression in Discourse". *Language* 69. 2.
- Halliday, M. A. K. (1985)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 Edward Arnold.
- Hockett, C. F. (1963) "The Problems of Universals in Language". in J. H. Greenberg ed., *Universals of Language*. MIT Press.
- Morley, G. D. (1985) *An Introduction to Systemic Grammar*. London and Basingstoke : Macmillan.
- Prince, E. F. (1979) "On the Given/New Distinction". *Papers From the Fifteenth Meeting*. Chicago Linguistic Society.
- Tomlin, R. S. (1986) *Basic Word Order: Functional Principles*. London : Croom Helm.